

## 제주도 초감제 신화와 썸의 문제\*

신연우\*\*

### [요약]

제주도 곳의 초감제에 보이는 창세신화인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는 하늘의 해와 달이 돌씩이라는 자연 자체가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악일 수 있다는 것, 수명장자가 이웃을 속이고 괴롭히는 악, 조상에 대한 악과 초월적 존재를 향한 악, 그리고 속임수로 인세를 차지한 소별왕으로 인한 지상의 악들을 제시되어 있다.

자연의 악은 대별왕 소별왕이 처리했다. 사회적 악은 징치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문제는 하늘의 일월을 조정해 준 소별왕이 이 지상의 다양한 안의 근원이라는 역설적 상황이다. 이는 결국 지상에서 악의 항존성에 대한 검토를 하게 한다. 인간 사이의 악이 지상이 존재하는 한 사라질 수 없다면 이 세상에는 유토피아란 존재하지 않는다. 유토피아 아닌 곳에서 살기, 악과 함께 살아가기의 문제를 초감제 신화는 제기한다.

다음으로 악을 문명사적 전환의 양태와 견주어 살펴보았다.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넘어가거나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도시 문명으로 옮겨갈 때 한 쪽은 선이 되고 다른 쪽은 악이 되었다. 우리의 문명 자체가 악을 포함하고 있는 선이라는 것을 역사가 말해준다. 제주도 신화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 늘 악은 선과 함께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세상이 근원적으로 유토피아가 아니라는 냉철한 인식이 우리를 현존하는 악에 대해 깨어 있게 한다. 현실의 비극에 눈을 감게 하지 않기 위해 해결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숙고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제주도 곳, 초감제,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악, 자연, 문명.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 2014-0855)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I. 머리말

우리나라의 창세신화인 제주도의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는 그 끝부분에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악이 어떻게 비롯되었는가 하는 까닭을 설명한다.<sup>1)</sup> 악의 연유를 설명하는 것은 악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는 세계관적 물음, 나아가서 세계의 구성 방식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다. 제주도 곳의 가장 초입인 초감제에 들어 있는 이 두 편의 신화는 악의 다양한 모습, 인간을 괴롭히는 악의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이는 악을 피하고 저지르지 않도록 유도하는 윤리적 효과를 갖기도 한다.

문학사의 첫장을 차지할 창세신화에서 악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은 인간 삶에서 악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세계가 처음 생기는 것과 동시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은 악의 필연성으로까지 확대되어 철학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곳 연행자와 참여자가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체계적으로 진술되지는 못하였더라도 의식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고는 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초감제 안의 두 편의 신화에 들어 있는 악에 대한 인식과 세계관을 정리해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자들은 이 신화가 인간 악의 기원 문제를 다룬다는 지적을 벌써부터 해왔다. 서대석은 통치권의 정당성과 통치자의 덕성을 지적하며 이승 법도가 문란한 잘못이 소별왕에게 기인한다고 하였다.<sup>2)</sup> 이수자는 “이 세계를 원천적으로 부정한 곳으로 보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다”<sup>3)</sup>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현선은 같은 속임수를 써도, 탈해나 주몽 같은 문헌설화의 주인공은 “나라의 시조가 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무속신화에서는 이 세상에 악이 유래했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산출한다”<sup>4)</sup>는 대조적인 면을 지적했다. 정진희는

1) 이 두 신화는 제주도 곳의 첫머리 제자인 초감제에서 구연되는 것으로, 본고에서는 편의상 간략히 줄여서 ‘초감제 신화’라고 칭하기로 한다.

2)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 22쪽.

3) 이수자, 『큰곳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집문당, 2004), 157쪽.

4) 김현선, 『제주도 지역의 창세신화』, 『한국의 창세신화』(길벗, 1994), 128쪽.

소별왕의 속임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이루어지는 이승이 불완전하다고 지적하면서 그것이 더 이승다운 모습을 갖는다고 하였다.<sup>5)</sup>

최원오는 창세신화의 악의 문제를 본론으로 다루었다. 만주와 아이누의 창세신화에서는 인간세계가 선하고 지하의 악마가 문제를 일으키는 데 반해 한국의 경우는 “인간 세계는 그 자체로 불완전하고, 문제의 발생은 항상 ‘현재 여기에’ 자체적으로 예비되어 있다”<sup>6)</sup>며 세계관적 의미를 찾아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상당히 흥미로운 지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창세신화의 악을 보다 세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만주와 아이누와 한국의 것을 함께 살펴느라 큰 쟁점만 부각했기에,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상세한 부분에서까지 악의 형상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 점을 다루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이 언급했듯이 제주도 뿐 아니라 내륙 특히 북부 지방의 창세신화도 거의 같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의의 집중을 위해서 제주도의 창세신화로 범위를 제한한다. 뒤에 이 결과를 내륙의 신화로 확대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초감제 신화에 보이는 악의 양상을 제시하고 그 해결에 대한 신화적 생각, 그리고 선과 관련해 악의 보편적 의미를 고찰해보고 역사적 이해를 다루어보고자 한다.

자료는 『한국의 창세신화』로 김헌선이 모아놓은 문창현, 박봉춘, 김두원, 고대중, 강일생, 정주병, 이무생, 김병효 구연본과 『동북 정병춘택 시왕맛이』의 서순실 구연본을 이용한다.

## Ⅱ. 초감제 신화의 악의 유형

〈천지왕본풀이〉에서 악인의 전형으로 처음부터 등장하는 인물이 수명장

5) 정진희,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일상’의 특성과 경험의 신화화 양상』, 『국문학연구』 14호(국문학회, 2006), 13~14쪽.

6) 최원오, 『창세, 그리고 악의 출현과 공간 인식에 담긴 세계관』,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창조신화의 세계』(소명출판, 2002), 93쪽.

자이다. 그는 세 종류의 악을 선보인다. 차례로 보자.

먼저 수명장자는 이웃 사람에게 악을 행한다. 가난한 총맹부인이 그 집에 가서 쌀을 꾸어다가 밥을 지어서 천지왕께 진지하니 첫 손가락에 돌이 씹혔다. 그의 악행은 이렇게 진술된다.

총맹부인님 밥 흰 상 출릴 썰이 엇엇, 제인장젓집이, 농이와 들렁 썰 흰 돼  
 얻으레 가난, 대미썰(大米)엔 대물레 소미썰엔 소물레 서터주난, 빌언 오란, 흰  
 불 두 불, 제삼술을 싣쳐두언, 밥 흰 상을 출런 들어가난, 천지왕님 첫 손가락 모홀  
 이 박힙니다.<sup>7)</sup>

수명장제가 없는 인간덜 대미 꾸 주렁 흰민 백모살(白沙) 허껴주고, 없는 인간덜  
 썰 꾸레 오라시민 흑모살 허껴주고, 없는 인간덜 썰 꾸레 오라시민 큰 말로 받아당  
 죽은 말(小斗)로 풀양 부제웨니<sup>8)</sup>

수명장자는 부자다. 그런데 그가 부자가 된 이유는 사람들을 속여서 큰 이윤을 취하였기 때문이다. 수명장자 가족과 이웃의 가난한 사람 집단이 크게 대조된다. 하룻밤 손님에게 대접할 쌀이 없어서 이웃집에서 빌려와야 하는 가난한 여인과 쌀을 빌려주면서 모래를 섞어주는 악한 부자가 뚜렷이 대비된다.

이미 부자와 가난한 자가 대립되어 있는 사회 구조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수명장자는 곡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점에 주목하면 곡식의 잉여분을 모아둘 수 있었던 사람이 등장하는 시대와 연관지어볼 수 있다. 여하튼 곡식으로 인한 사회 계층 분화와 가진 자 또는 권력자가 악한 행동을 하는 인간 사회의 모습을 이룬 시기부터 짚어냈다고 할 수 있다.

수명장자가 저지르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악은 부모와 조상을 박대하는 것이다. 부자인 수명장자는 환갑이 된 아버지에게 하루 한 끼만을 봉양한다. 아버지가 죽어서도 제사를 받아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죽은 후에는

7)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대 시왕맛이』(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248쪽.

8) 정주병 구연, 〈천지왕본풀이〉,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432쪽.

제사 받으러 오지 않을 것이니 세 끼를 달라고 해서 식사를 한다. 죽은 후 제사를 받으러 가지 않자 옥황상제가 사유를 알게 되고 천지왕을 보내어 수명장자를 별하게 한다. 이는 문창현 본, 김두원 본, 이무생 본에 잘 구술되어 있다. 이무생 본이 가장 상세하고 극적이다.

아버지, 사름 혼 대가 서른인디, 아바진 금년이 예썬, 두 대를 살아시니 너무 살았수다. …… 아방은 죽어가도 인간이 초흔를 보름 식개 멩질 기일 제스 때에 하다 오지 아니헝키엥 징서를 씹서, 아방은 경 헝기로 징서를 씨난, …… 쉼맹인 죽은 아방을 거적에 썬 간 퇴와불고 아방상에 물 혼적 거려놓는 양 엇이 편쩍헝연 지내엿수다.<sup>9)</sup>

늙은 아버지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아버지가 늙어 노동력이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동물계에서 인간만이 가진 도덕이다. 수명장자는 이 도덕을 저버린 인간이다. 달리 보면 이 신화는 인간이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던 단계에서 부모 봉양을 도덕으로 규정하게 된 시기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일반인에게 점차적으로 확산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 신화는 민담이 되기도 하는데 민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삿날 아들 집에 간 아버지가 정말 아무 것도 차려놓은 것이 없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손자를 불에 던져 죽게 하고 돌아오거나 집을 망하게 하는 것으로 되었다.<sup>10)</sup> 이는 조상 봉양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자손에 대한 징벌의 형태로 구체화되어 전하게 된 것이다.

늙은 아버지와 죽은 조상을 봉양하지 않는 것은 사람에게는 악이 된다. 자연계인 동물에서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지 않지만 인간은 그 의무를 져야 한다. 그것이 동물에서 인간으로 한 차원 높은 존재로 올라온 표증이다. 이를

9) 이무생 구연, <천지왕본>, 김현선, 위의 책, 439쪽.

10) 현용준 편, <제사이야기>, <제사를 아니하여 망한 아들>, 『제주도민담』(제주문화, 1996), 18~21쪽, 176~177쪽.

이행하지 않는 것은 악행이라는 것을 이 모티프는 강하게 전달한다.

수명장자의 세 번째 행악은 초월적 존재를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것이다. 박봉춘 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인간이 수명장자가 사읍는데 무도막심하되  
 말 아홉 쇠 아홉 계 아홉이 있어서 사나우니  
 인간 사람이 욕을 보아도 엇절수 업사읍는데  
 수명장자가 하로는 천왕께 향하야 아뢰되  
 이 세상에 날 잡아갈 자도 있으리야 호담을 하니  
 천주왕의 께심히 생각하야 인간에 내려와서  
 수명장자 문박개 청버드낭 가지에 안잔  
 일만군사를 거나리고 승험을 주되<sup>11)</sup>

수명장자는 지상의 권력자로 보인다. 말 소 개 등 짐승을 거느리고 있어서 하늘의 군졸들이 벌은커녕 그 집엘 들어가지도 못한다.<sup>12)</sup> 다시 말하면 수명장자는 하늘의 천지왕과 대적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가 어느 정도나 강한지는 다음 인용문을 보면 된다.

천지왕은 일만군스 시견 쉬맹이신디 승험을 들여봐도  
 쉬맹이가 깃딱을 안 흐난 이젠 쇠철망을 꺾다간 쉬맹이 대갱이레 꽉 씌우난  
 그젠 쉬맹인 아이구! 대맹이여, 애이구! 대맹이여,  
 큰 아들이 도치 그정 오랑 나 대맹이 직어도라 대맹이 아팠 못살키여.  
 .....

천지왕은 대갱이 씌운 철망 부서지카푸덴 철망을 확 걷우난  
 아픈 대강인 옥곳 나사진다.

천지왕은 느시 쉬맹일 잡지 못흐연 바구왕 집으로 가는구나.<sup>13)</sup>

11)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김현선, 403쪽.

12) 이무생 구연, 〈천지왕본〉, 김현선, 442쪽.

자기 머리를 도끼로 찍으라며 반항하는 수명장자를 천지왕은 어찌지 못하고 돌아가 버린다. 이런 경우 나중에 천지왕의 아들인 소별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게 된다. 이 모티프는 어쩌면 수명장자가 악인이라기보다 천지왕에 대적하는 강한 권력자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부모 조상을 돌보지 않고, 이웃 사람들 속여서 부자가 되었다는 점과 함께 놓여서 이 부분도 그의 “무도막심”한 면으로 인정된다. 지상의 인간이 천상의 천지왕을 대적하는 오만함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인간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려는 마음이 악한 것이다. 그런 인간은 오래 갈 수가 없고 반드시 징치당하게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천지왕본풀이〉에서 아주 중요한 화소는 인간 세계의 악의 기원과 그 결과를 해명하고 있다. 〈천지왕본풀이〉 신화의 구연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동생인 소별왕은 이승을 차지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쓴다. 꽃피우기 경쟁을 하여 꽃이 번성한 쪽이 이승을 차지하기로 하였는데 형의 꽃이 번성하고 자기 꽃은 시들자 형이 잠든 틈을 타서 몰래 꽃을 바꿔치기 한다. 그 결과로 지상에는 다음과 같은 악이 지속되는 것이다.

형님이 아시보고 꽃동이를 바꿔놓았다 아니하고  
 설운아시 금시상법 지녀서 살기랑살라마는 금시상법은  
 배에는 수적도 많고 먹든되는 강적도 많고  
 유부녀통간 간부갈런 살린살이 많히리라.<sup>14)</sup>

설운아시 소별왕아 이승법이랑 친지혜여 들어사라마는 인간의 살인 역적 만히리라. 고문 도둑 만히리라. 남죽죽식 열다섯 십오세가 돼며는 이녀 가속 노아두고 놈의 가속 올리르기 만히리라. 예죽죽도 열다섯 십오세가 넘어가민 이녀 뱀편 노아두고 놈의 뱀편 올리르기 만히리라.<sup>15)</sup>

13) 이무생 구연, 〈천지왕본〉, 김현선, 444쪽.

14) 고대중 구연, 〈천지도업〉, 김현선, 418쪽.

15) 정주병 구연, 〈천지왕본풀이〉, 김현선, 437쪽.

살인 역적 도둑 간통 등의 악이 생겨난 사연을 해명하고 있다. 이런 악들은 개인이 저지르는 행위에 초점이 놓여 있다. 이는 지상을 다스리는 소별왕의 속임수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악은 인간 사회가 생겨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행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이 신화는 세상에는 이런 악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악이 존재하므로 악의 유래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다. 소별왕으로 인해 그것은 세상의 처음부터 있게 마련이니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숨어 있다.

여기서 악을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일체의 것으로 보면 <천지왕본풀이> 앞에 구연되는 <베포도엮침>에서 하늘에 해와 달이 둘 씩 만들어진 것도 인간에게는 악이 된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가하는 행악이다.

금세상을 굶어본직, 밤도 캄캄 낮도 캄캄, 인간이 동서남북을 모르고 가림을 못  
가린직

해음업시 남방국 일월궁의 아달 청의동자가 소사낫스니 압이망 뒤틀이망에 눈이  
돌식 도닷심내다.

하늘옥황으로 두 수문장이 내려와서 압이망에 눈 둘을 취하야다가

동의동방 십제땅에서 옥황께 축수한직 하늘에 해가 둘이 돛고

뒤틀이망에 눈 둘을 취하야다가 서방국 십제땅에서 옥황께 축수한직 달이 둘이  
소사난직

금세상은 밝았스나 햇둘에는 인생이 자자죽고 달빛해는 실허죽어서 인생이 살  
수 업슨직<sup>16)</sup>

최초의 천지개벽 혹은 천지창조는 그대로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하늘에 해가 둘 달이 둘 있는 것은 자연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인간이 살기에는 큰 문제가 된다. 자연은 그대로는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온다. 이 자연의 악은 넓게 보면 가뭄과 홍수를 가리킬 뿐

16) 박봉춘 구연, <초감제>, 김현선, 395쪽.



아니라,<sup>17)</sup> 태풍과 지진 등 자연이 초래하는 고난의 어떤 것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보면 초감제 신화인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는 첫째 자연 현상이 초래하는 악 둘째 수명장자가 보여주는 이웃에 대한 악, 조상에 대한 악, 초월적 존재에 대한 악, 셋째 소별왕으로 인한 지상의 제반 악이 드러나 있다. 이는 차례로 자연의 악, 사회적 악, 개인이 저지르는 악<sup>18)</sup>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Ⅲ. 해결 방법

초감제 신화는 이 악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살펴보자. 먼저 하늘에 해가 둘 달이 둘 있어서 사람들이 죽는 문제는 천지왕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들이 활을 쏘아 해와 달을 하나씩 바다에 떨어뜨려서 해결한다. 유은거 처 등의 인물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서사 구성으로 보아서 아들의 행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왜 하늘의 초월적 존재인 천지왕이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아마 그 문제가 지상의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다. 지상의 문제는 천상과 초점이 다르다. 천상의 관점으로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인식이다. 해가 둘 있는 것은 지상의 인간에게만 문제가 된다. 그것은 지상과 관련을 맺는 존재에 의해서만 해결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천지왕은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지상의 문제에 대한 체형적 인식이 없기에 인간과 일차적인 단절이 있다. 그래서 천지왕은 지상에 내려와서 총명부인이나 서수암이 등 지상의 여인과 혼인을 맺고 아들을 낳는다.

17) 서대석,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세창출판사, 2012), 71쪽.

18) 소별왕은 단순한 개인을 넘어서는 존재지만 그 자신은 지상에는 개인들이 저지르는 악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다.

햇둘에는 인생이 자자죽고 달빛혜는 실허죽어서 인생이 살수 업슨직  
 천지왕이라 하신 양반 금세상에 강림하사 바지왕과 배필을 무어서 잇다가  
 하날로 올라가신 후고 바지왕이 잉태되야 대별왕 소별왕 양도령이 소사났습니  
 다.<sup>19)</sup>

이 아들들은 지상의 가난뱅이 어머니와 천상의 초월적 존재인 천지왕의 자식이다. 이들은 지상의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와 고통을 나누어 갖고 있다.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그 능력의 표시는 하늘 옥황으로 올라가서 아버지로부터 전해 받은 활이다. “천근량의 무쇠쌀과 활 둘을 대여주며 해도 한 개 쏘고 달도 한 개 쏘와라.”<sup>20)</sup> 그 활을 쏘아서 해와 달을 하나씩 떨어뜨려 다른 별들을 만들었다.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인간 세계를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다. 자연을 인간이 살만한 곳으로 만드는 것은 자연인 인간이 자연을 넘어서서 초월적인 시각으로 자연을 상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 위에서 자연을 대상화함으로써 자연을 지배하고 조종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을 형상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각편에서 일월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자연으로 인한 문제는 인간 사이의 갈등 없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인간은 합심해서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은 인간 사이에 벌어지는 문제 해결과는 다르다.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해결되지 않는 것도 있다.

문창헌과 정주병 본은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한다. 박봉춘 본은 천지왕이 실패한 것을 소별왕이 징치한다. 김두원과 이무생 본은 천지왕이 수명장자 징치에 실패했는데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언급이 없다. 서순실 본은 수명장자의 악행이 암시되지만 징치에 대한 말은 없다.

가진 자, 권력자의 횡포에 대한 징치는 모든 사람의 소망이다. 하늘의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데 성공하는 각편은 그 공정함, 정당함을 주장

19) 박봉춘 구연, <초감제>, 김현선, 395쪽.

20) 박봉춘 구연, <초감제>, 김현선, 396쪽.

한 것이라고 이해해볼 수 있다. 하늘이 직접 사회적 악을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늘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한 것이기에 그대로 시행되면 가장 정당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하늘이 그렇게 제때에 악을 징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데 있다. 천지왕은 지상의 악을 해결하는 데 실패할 수 있다. 실패하는 모습을 인류는 오랫동안 보아왔다. 이 경우도 둘로 나누인다. 그래도 천지왕의 아들인 소별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경우와 아예 정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이다. 소별왕이 수명장자를 징치하는 것은 그래도 지상에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요구와 해결책이 있다는 인식일 것이고 언급도 없는 것은 그런 악에 대하여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일 것이다.

실제로 가진자, 권력자의 악에 대한 해결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해온 것이 인류사의 실상이다. 과거를 보면 수많은 권력자를 몰아냈으니 정치에 성공한 것이고 현재를 보면 지금도 지속적으로 부정한 권력자가 횡행하고 있으니 전혀 정치가 되지 않은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수명장자 정치에 대한 민중의 요구의 정도를 보여준다.

아시는 인간차지하야, 수명장자를 불너다가

네가 인간의 포악부도한 짓슬 만이 하니 용사할 수 업다 하야

압밧디 벋텅 걸나 뒗밧디 작지 갈나 참지전지 한 연후에

뼈와 고기를 비져서 허풍바람에 날이니 목이 파리 빈대 각다리 되어 나라가고<sup>21)</sup>

참지전지는 목을 베고 수족을 절단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 정치의 주체는 천지왕의 아들인 소별왕이다. 소별왕이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가 천상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지상적 존재가 갖지 못한 초월적 힘을 가지고 있기에 소별왕은 수명장자를 징치할 수 있었다. 수명장자의 뼈와 고기를 발라내서 바람에 날리니 모기 파리 빈대 각다귀 등 해충이 되었다고 하니 지금도 그

21)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김현선, 406쪽.

악행의 잔적이 남아 우리를 괴롭힌다. 사회적 악을 저지르는 권력자에 대한 증오심의 크기를 보여준다. 정치의 주체는 소별왕이지만 정치의 욕망은 민중적인 것이다.

이점은 소별왕으로 인한 악에 관한 인식과 차이가 있다. 소별왕이 형을 숙여서 이승을 차지했기에 이승에는 사기, 도둑, 살인, 역적, 간통이 지속된다.

경호연 대별왕광 소별왕은 아방 땡을 어전

천지왕 골은냥 흐지 아니흐여부난

인간 세상이 하근 도둑들이 하고 불목즈가 하고 나쁜 일이 하영 납네다.<sup>22)</sup>

이런 결말은 이로 인한 악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사회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개인의 결단과 행적으로서의 의미가 큰 이러한 종류의 악은 개인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남을 속인다거나 미워하는 사람을 살해한다거나 혼인 관계 밖의 관계를 맺는 다거나 하는 일은 법으로 금하거나 윤리적으로 부당함을 가르쳐도 아주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는 권력자 또는 가진 자의 악과는 또 다르다. 권력자의 악은 사회 정의라는 개념이 적용되지만 이들 악은 정의나 공정의 차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권력자의 악은 민중 일반의 의지로 척결을 주장할 수 있는데 이들 악은 민중 자신도 악의 주체가 될 수 있어서 일관되게 해결을 요구하는 특정 집단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악의 원인이 소별왕이라는 점은 특히 주목할 가치가 있다. 소별왕은 바로 수명장자를 정치한 반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소별왕이 속임수로 이승을 차지한 까닭을 소별왕의 말로 들어보면 이러하다.

소별왕의 근심하기를 자기가 인간 차지하고 형의 지옥 차지하게 되면

22) 이무생 구연, <천지왕본>, 김현선, 455쪽.

수명장자를 버력을 주워서 행실을 가르치지마는, 우리 형은 못하리라 생각하  
고<sup>23)</sup>

꽃을 피우는 은대야를 바꿔치기 하여 이승을 차지한 이유는 수명장자를  
벌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악인인 수명장자는 징치하였으나 그렇게 하기 위  
하여 속임수를 쓴 결과로 이승에는 속임수 등 악이 지속되는 결과를 빚었다.  
이는 대단히 역설적이다. 악을 없애기 위해 다른 악이 등장한다면 어떻게 해  
야 하는가? 악이란 무엇인가? 악과 선은 어떤 관계인가? 신화는 이런 질문에  
대한 나름의 모색이다.

#### IV. 악의 항존성, 선과의 관계

문학은 악을 현실적인 문제로 다룬다. 라이프니츠 같은 철학자가 “만약 악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그만큼 덜 완전한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상은 무엇인가 하나가 부족한 것이기 때문이다.”<sup>24)</sup>라고 말하는 것은 문학  
에서 보면 말을 위한 말, 이론을 위한 이론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악  
과 그로 인한 고통은 예를 들자면 “이마에 흐르는 땀처럼 명백히 현존”<sup>25)</sup>하  
는 것이다. 박이문처럼 “악이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사물과 사건에 대한  
인간의 태도일 뿐이며 그 인간은 우주의 극히 작은 현상에 불과”하므로 인간  
에게는 “어떻게 하면 악을 피하고 즐거움을 찾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아 있  
다.”<sup>26)</sup>는 관점은 또한 우리의 실감과는 거리가 있다. “악은 언제나 커다란  
골칫거리이며 악의 유래에 대한 질문은 삶의 본질적인 고통거리이”<sup>27)</sup>기 때  
문이다.

23) 박봉춘 구연, <천지왕본풀이>, 김현선, 405쪽.

24) 박이문, 『악이란 무엇인가』, 『문학 속의 철학』(일조각, 1975), 51쪽.

25) 정현중, 『나는 별 아저씨』(문학과지성사, 1978).

26) 박이문, 앞의 책, 55~56쪽.

27) 안네마리 피퍼, 이재황 옮김, 『선과 악』(이끌리오, 2002), 78쪽. 베른하르트의 말 재인용.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초감제의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 보이는 악은 체계적으로 구성 제시되어 있다. 먼저 해와 달이 하늘에 들쭉 있는 것이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는 악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는 천지왕의 아들에 의해 완전히 해결이 된다. 해와 달이 하나씩 남아서 지상의 인간들이 살기에 적절한 환경으로 개선되었다.

해와 달이 들쭉 있는 것은 고통을 준다는 점에서는 악이지만 인간이 저지른 행위가 아니어서 인간악의 범주로 보기에는 선명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수명장자의 행위는 명백한 악이다. 그것은 자연에서 문화로 옮겨오는 변천 과정에서 악의 문제가 부각됨을 잘 보여준다. 수명장자가 보여준 악은 세 가지였다. 부모와 조상을 봉양하지 않는 것, 가난한 이웃을 속여서 부자가 된 것, 초월적 존재를 무시하는 것 등이다.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때에는 자기반성적 또는 자아적 특성으로 표현되는 구조, 다시 말해 인간 생물체의 행위가 ‘인간적’인 특성을 갖게 하는 어떤 구조를 가정한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인간이 인간이기 이전에 (경험적으로) 어떤 존재였던 간에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상(像)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발전과정에서 그러한 상을 형성할 수 있는 존재를 상정할 때만 가능하다.<sup>28)</sup>

늙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나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지 않는 것, 초월적 존재에 대한 무시 등은 ‘自然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름지기 인간이란 어떠한가에 한다는 ‘상(像)’의 규정이 있고 그 규정을 벗어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의식을 필요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이 신화로 보면 적어도 제주도에서는 늙은 부모를 모시고 조상을 섬기는 것, 가난한 이웃을 속이지 않는 것, 초월적 존재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인간다운 모습이고 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악한 행위로 규정된다.

28) 위의 책, 68쪽.

부모를 봉양하는 것, 이웃을 돌보는 것, 초월적 존재를 경외하는 것이 자연 상태가 아니라 인위적인 규범이라면 이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선이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각성을 하고 실천을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선을 잘 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범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내재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수용되어야 한다. 이는 선을 위한 철학 또는 윤리학적 해명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신화는 일월조정 화소와의 비교를 통해서 자연으로 인한 고통의 악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어서 수명장자의 악이 바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그것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는 근본적인 통찰을 갖게 한다. 만약 수명장자의 악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다른 인간도 그와 마찬가지로 악인이어야 할텐데 이웃사람인 총명부인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신이 제시한 규범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주목해보자.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벌하려고 하지만 이는 천지왕이나 옥황상제가 제시한 규범이 아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천지왕은 수명장자를 벌하지 못하기도 한다. 가령 기독교의 성서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제시한 규범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선이고 어기는 것이 죄이다. 그것은 ‘계약을 어기는 것, “그 계약관계의 침해가 곧 죄다.”<sup>29)</sup> 초감제 신화의 경우는 천지왕이 제시한 규범에서가 아니라, 공동체를 유지하는 행위가 선이고 장애가 되는 것이 악이라는 인식이다.

늙은 부모를 봉양하거나 죽은 조상을 섬기는 것은 인간 개인의 선악과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약자를 보호하고 죽은 자의 명예를 살려주는 것은 사회를 유지하는 훌륭한 사유와 명분이 된다. 사회에 비해 약자이기만 한 개인들은 약자가 보호된다는 공동체의 인식이 있어야 사회에 협조할 수 있다. 죽은 자도 기려진다는 인식이 있어야 삶을 보람되게 산다. 가난한 이웃을 속이지 않고 돌보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요구이다. 초월적 존재를 경외하는 것도 공동체를 묶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이라는

29) 폴 리코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문학과 지성사, 1994), 60쪽.

상을 제시하는 것이다.

자연상태의 인간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문화적 존재인 인간으로 발전하면서 사회를 이루고 따라서 이러한 규범들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선이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전에 이와 같이 벌과 함께 하는 악의 개념이 먼저 도입되었을 것 같다. 초감제 신화는 그 양상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자유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안네마리 피퍼의 견해는 일면적이다. 그의 이론은 소별왕으로 인한, 살인 사기 도둑질 등의 악에 대해서도 피상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피퍼는 악의 문제가 인간이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그래서 선은 선을 향한 결단의 결과이다. 개인적으로는 선한 결단을 하면 되겠지만 그것은 개인 차원에 머문다. 악이 사라질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라는 인식은 개인이 선하면 될 뿐이라는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한다.

초감제 신화에 보이는 개인적 차원의 악들은 항존성이 강조되고 있다. 세상의 처음에 소별왕이 속임수를 썼기에 이승에는 악이 생겨났다. 이승이 사라지기 전에는 그 악들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단히 비관적 인식이 이 신화에 담겨 있다. 기독교에서도 사탄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에 악이 존재한다고 본다. 종말의 시간이 지나서 사탄이 물러나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면 해결된다고 본다. 소별왕으로 인한 이승의 악에 대하여는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는다.

해결도 되지 않고 끝도 없을 악과 우리는 공존해야 한다. 그것은 악의 근원이 바로 선을 가져왔던 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악을 없애면서 동시에 악과 병존한다. 선과 악은 하나의 뿌리라고 초감제 신화는 말한다. 서로 꼬리를 물고 있는 두 마리의 뱀처럼 선과 악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있다.

악이 근원적이고 본질적이기에 우리는 악을 완전히 제거하거나 악에서 놓여날 수 없다. 그것을 알고 살라고 초감제 신화는 알려주는 것 같다. 그것은 인생은 괴로움도 있지만 즐거움도 있으니 선과 악의 중용을 택해 살라는 볼테르의 결론<sup>30)</sup>과도 다르다. 우리는 악 속에서 산다. 그러니 조심할 밖에 다른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이 악임을 알고 스스로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



하고 산다. 악이 만연해 있으니 악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인간은 본래 선하다는 식의 말에 넘어가 현실적 악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아야 한다. 악은 이승의 시초, 근원에서부터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연의 악은 해결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과 달리 사회적 악은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는 인식과 개인적 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시각을 위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초감제의 〈베포도엮침〉과 〈천지왕본풀이〉가 보여주는 악의 인식이다. 실제로는 자연의 악도 영원할 것이다. 가뭄과 홍수, 해일과 지진, 전염병과 같은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대하여는 인간들이 협조하며 해결에 뜻을 함께 하기에 낙관적 전망을 보여준다. 문제는 인간 사이의 악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상에는 유토피아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냉정한 인식을 보여준다.

유토피아 없는 곳, 유토피아 아닌 곳에서 살기-이것이 초감제 신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면 이것은 바로 제주의 척박한 환경에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쉽게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목숨을 담보로 하는 바다와의 싸움, 고려부터 조선시대 말까지 본토의 지속적인 착취로부터 최근의 4·3 사태에 이르기까지 제주도를 유토피아로 여길 수 없게 하는 여러 조건들이 있었다고 보인다.

대신에 유토피아는 저승에 있다. 이승과 달리 저승은 악이 없는 세상이다. 저승법은 “참실곧은 법”<sup>31)</sup>이고 “맑고 청낭(淸朗)한 법”<sup>32)</sup>이다. 이는 신들의 세계이다. 신이 아닌 인간은 이승에서 악과 함께 살아간다. 이러한 실존적 존재 인식은 초공본풀이의 노가단풍 아기씨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 V. 악의 문명사적 조망

초감제의 창세신화에서 악을 대표하는 수명장자의 정체에 대해 단순한 부

30) 박이문, 앞의 책, 49쪽.

31) 고대중 구연, 〈천지도엮〉, 김현선, 418쪽.

32) 정주병 구연, 〈천지왕본풀이〉, 김현선, 437쪽.

자가 아니라 자연총량의 지신적 존재<sup>33)</sup>라고 천혜숙이 지적한 이후 박종성과 김남연은 각각 수신계 또는 지신계의 권력자로 보고, 결국 천지왕쪽의 새로운 권력 질서로 재편되어 자리잡는 것으로 파악했다.<sup>34)</sup>

수궁이 가는 지적이기도 하지만 천신이나 지신계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여서 언제 그러한 전환이 있었다는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하고, 또한 이와 아울러 후반부의 소별왕으로 인한 악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는 점도 아쉽게 여겨진다. 후자에 대하여는 박종성이 초월적 능력 대결에서 지혜 대결로 변천했다는 지적을 하였지만<sup>35)</sup> 결정적 요인인 소별왕의 속임수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를 문명사적 전환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고 보인다.<sup>36)</sup>

창세신화는 구석기 시대가 아니라 신석기 시대의 산물일 것으로 추정한다. “신석기 시대에 들어선 지 한참 되어 농업사회가 정착하자, 농사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을 시간 여유가 생겼다.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복잡한 사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해, 천지가 창조되고 작용하게 된 내력을 설명하는 창세 신화가 이룩되었다.”<sup>37)</sup> 구석기 시대의 신화는 먹이가 되는 짐승을 토tem 또는 신으로 설정하여 짐승과 인간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현실적이기만 한 것이어서 구석기 시대에는 하늘의 질서라든가 초월적 존재라든가 하는 개념이 없었다고

33)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계명대학교 박사논문, 1988), 51쪽.

34)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태학사, 1999), 218쪽; 234쪽.

김남연, 「창세신화를 통해 본 장자정치담의 의미」, 『역사민속학』 8(역사민속학회, 1999), 24쪽.

35) 박종성, 앞의 책, 271쪽.

36) 한 편의 신화에 문명의 전환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사례는 아이누 영웅 서사시의 경우이다. 〈카무이 유카르〉 또는 〈코탄 우툰나이〉라고 하는 아이누의 영웅 서사시에 나오는 석기로 무장한 사람, 금속으로 무장한 사람, 불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조동일은 원시시대의 투사, 고대의 지배자, 신이면서 사제자인 왕의 모습으로 파악하였다.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문학과지성사, 1997), 167쪽.  
〈코탄 우툰나이〉 작품 전체는 최원오 편역, 『아이누의 구비서사시』(역락, 2000), 205~307쪽에 수록되어 있다.

37) 조동일, 『세계 문학사의 전개』(지식산업사, 2002), 30쪽.

신석기 시대에 들어와 간단한 기하학적 도형과 극도의 추상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하우저도 지적하고 있다. 아르놀트 하우저, 백낙청 옮김, 『개정판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창작과비평사, 1999), 22~23쪽.

보인다.<sup>38)</sup> 그 당시 모든 사고는 지상적인 것이었다.

신석기 시대로 들어서면서 인류가 알게 된 농경문화는 그 앞 수십 세기 동안 지속되어왔던 수렵문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수렵문화가 농경문화로 대체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농경문화는 추상적 사고를 토대로 천지개벽 또는 천지창조의 신화를 생산하게 되었다. 천지 창조의 신화가 새로 마련되자 수렵문화의 위치는 낮은 것으로 부정되게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석기 시대의 천지창조 신화는 땅의 씨앗이 하늘의 햇빛의 힘을 받아서 새 생명을 갖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을 본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그들은 하늘이라는 초월적이고 추상적 실재를 창안했고, 그 추상적 질서는 대지라는 구체적 실체와의 결합으로 만물을 빚어낸다는 생각으로 연결된다.

하우저가 지적한대로 구석기 시대의 “마술 중심의 세계관은 일원론적으로서 현실을 단순한 상호 연결의 형태로, 빈틈이나 단절이 없는 연속체의 형태로 파악하는데 반해, 애니미즘은 이원론적이어서 그 지식과 신앙을 이원적인 체계로 정립한다.”<sup>39)</sup> 천지왕이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일원론적인 것이었다. 하늘과 지상이 분리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하늘의 질서관으로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지상은 이미 이원론적 세계관을 가지게 되었기에 천지왕의 방법은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 이원론은 그러나 결국 지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신화는 지상의 문제를 알고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늘의 원리 즉 통일적이고 영속적인 질서의 원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에 의해서만 지상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있다.<sup>40)</sup>

이러한 존재는 영웅의 원형적인 모습인데, 같은 이야기를 조셉 캠벨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논하고 있다. 캠벨은 영웅의 과업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첫 번째 과업은 우주 발생적 순환의 그 전단계를 의식적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것은 발산의 사건들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업은

38) 아르놀트 하우저, 위의 책, 16~17쪽.

39) 위의 책, 26쪽.

40) 신연우, 『〈베포도업집〉 〈천지왕본풀이〉의 구조를 통해 본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관계』, 『열상고전연구』 40집(열상고전연구회, 2014), 401쪽.

심연에서 일상의 삶으로 귀환하여 조물주적 잠재력을 가진 인간적인 변환자 재자가 되는 것이다.”<sup>41)</sup>

우주 발생적 순환의 그 전단계란 창세 초기에 분화되는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 그것은 “세계의 가시적인 모든 구성물-사물과 존재-은 편재하는 힘에 의한 결과”<sup>42)</sup>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다른 말로 하면 영웅은 자신의 근거인 지상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그 근원인 창세적 존재를 자기 것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적 몸에 근원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점을 깨닫고 체화한다면 그는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된다. 그것이 바로 천지왕과 지상녀 사이의 아들(형제)의 탄생의 의미이다. 둘째 과업은 그러한 자각을 통해 일상으로 귀환하여 인간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는 아들 형제가 하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자기 정체성 확인과 시련 그리고 극복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상의 질서를 확립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영웅은 새로운 세계를 만든다. 새로운 세계는 지상의 문제를 천상의 원리로 해결하여 얻은 새로운 질서를 가진 세계이다. 이 세계는 새로운 원리를 가진 새로운 사회이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자면 영웅은 구질서를 새롭게 경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해하면 “채집 수렵민들의 기생적이고 순전히 소비적이던 경제생활이 농경 목축민들의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경제로 이행”했기에 “구석기시대의 마술 중심의 일원론적 세계관이 애니미즘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의해 대체되었다.”<sup>43)</sup>

신화는 세계관과 현실의 변화와 교체를 의인화하여 다룬다. 우리 신화의 경우 땅을 여성으로 비유해서 말하며 지상적 남성과 결합해 있던 여성이 그와 결별하고 천상적 남성과 재결합하는 것으로 종종 나타난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를 낳는다. 이 관념이 신화의 뿌리 중 하나이다. 그 여성은 며느리, 이웃집 여자로 나타나고 새로운 남성은 하늘의 신, 도승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한 사례는 장자못 전설과 주몽신화이다. 장자못 전설

41) 조셉 캠벨, 『세계의 영웅신화』, 311쪽.

42) 위의 책, 253쪽.

43) 아르놀트 하우저, 앞의 책, 27쪽.

의 머느리는 못된 시아버지를 떠나 도승의 말을 따른다. 그 결과는 시아버지 세계의 멸망이다. 한 세계의 멸망은 곧 다른 세계의 재창조를 함축하는 것이다. 유화 또한 아버지 하백을 떠나 하늘에서 왔다는 해모수와 결합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주몽을 낳는다.

창세신화 <천지왕본풀이>에서 천지왕이 지상국 부인과 결합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야기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같이 지상에 거주하던 수명장자를 축출해야 한다. 수명장자를 축출하는 것은 제주도에서는 불로 멸망하지만 함경도 지역에서는 물로 멸망하여 장자못 전설과 같아지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창세기에서 한번은 노아 홍수의 물로 또 한번은 소돔의 유황불로 세계를 멸망시키는 것을 참조할 수도 있다.

이때 수명장자가 악하다는 설정을 이해할 수 있다. 새로운 질서 앞에 축출되어야 할 질서였기 때문이다. 오래된 것 낡은 것 사라져야 할 질서는 악한 것이다. 박봉춘 구연본에서 수명장자가 천왕을 향해 “이 세상에 날 잡아갈 자가 있으리야” 하자 천지왕이 껄껄하게 생각하여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그의 악이 다름이 아니라 천지왕과 대등하고자 했던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구시대의 구석기적 지상적 관념이 새로 등장한 신석기 시대의 천상적 질서 관념과 충돌하였고 결과적으로 패배하고 축출당하였음은 제주도 다른 신화에서도 거듭 나타난다. <세경본풀이>는 많은 변이를 겪었지만 그 중에 대식가인 하인 정수남이 목축의 신으로서 농경의 신인 자청비와 목숨을 내건 싸움을 벌이는 것은 그 좋은 예이다. <송당본풀이>에서 소천국이 남의 소까지 다 잡아먹자 아내인 백주가 살림을 가르치는 것은 사냥으로 살아가는 남성이 농업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성으로부터 축출되는 모습을 여실히 그려낸다.

창세신화의 전반부가 홍수 등으로 세상을 멸망시키고 천지가 새로이 결합하여 형제를 낳아 그들이 세계를 완전하게 조정해나간다는 내용이라면, 후반부는 조정된 세상을 차지하기 위한 형제의 다툼과 경쟁이 주된 내용이고, 이 다툼의 기본 설정은 속임수이다. 전반부의 신화가 구석기적 수렵문화를 물리치고 하늘의 질서를 통해 세계를 재편하려는 신석기 시대의 농경적 성격을

보여준 것처럼 후반부의 신화도 인류의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형제의 대립과 속임수의 의미를 함께 설명해주는 역사적 상황은 무엇인가?

아우가 형을 속여 세상을 차지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악이 횡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천지왕본풀이>의 일반적인 결론이지만, 종종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구연본을 만나게 되는 것을 주목해보자.

낭기, 돌, 제푸싯세 말 굶는 건/ 후춧골리 닛말 닛되 칠새오리/ 말 바소완 마브  
름 주제에/ 동서레레 삭삭 불려부난,/ 낭기, 돌, 제푸싯새, 감악새가/ 세가 칭칭  
자런/ 말 못긔게 되었구나

귀신광 생인이 서로 말 굶는 건/ 화정여광 남정종을 불려다가/ 백근 저울에 저우  
려판/ 백근 찬 건/ 인간테레 지부찌고/ 백근 못 찬 건/ 공즈 돌 박안/ 옥황테레  
지울리난/ 귀신을 공즈가 돌이나/ 저싱광 생인을 브래고/ 생인은 공즈가 흐나 매  
기난/ 귀신을 못 브랜다<sup>44)</sup>

형제가 이승차지 경쟁을 벌인 후 벌어진 일이다. 둘씩인 해와 달을 조정하고, 인간과 마찬가지로 말을 하던 나무와 돌 등을 말을 못하게 하고, 함께 섞여 있던 귀신과 산사람을 갈라놓았다. 만물에 질서를 가져온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첫 번 창세와 다른 점은 이번 것은 인간 위주로 만물이 조정된다는 점이다. 인간을 위해 해와 달을 하나씩으로 조정하고, 말을 하던 나무 돌의 혀를 묶고, 귀신을 사람과 구분하는 것은 인간을 위한 새로운 질서이다. 그것은 자연을 인간을 위해 재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박봉춘 구연본의 의미가 더욱 뚜렷하다.

소별왕의 근심하기를/ 자기가 인간 차지하고, 형의 지옥 차지하게 되면/ 수명장  
자를 버력을 주워서, 행실을 가르치지마는/ 우리 형은 못하리라 생각하고/ (중략)  
/ 인간의 버릇을 가르치고/ 복과 록을 마련하야, 선악을 구별하고/ 인간 차지하옵

44) 이무생구연, <천지왕본>, 김현선, 앞의 책, 454쪽.

내다.<sup>45)</sup>

아우가 세상을 차지한 것은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자연의 질서를 대표하는 형은 악한 인간인 수명장자를 징치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인간의 질서가 따로 있기 때문이다. 아우는 세상을 차지한 후 복록을 마련하고 선악을 구분했다. 형은 하늘 아버지의 보편적 원칙을 나타내고 아우는 지상의 어머니의 특질을 가지고 인간을 대변하고자 한다고, 자연과 인간사회의 대립으로 우선 이해해보자. 이때의 자연은 천지창조 당시의 원초적 자연이 아니고 인간사회와 대립되는 자연이다. 그리고 인간사회와 대립되는 자연은 신석기 시대 후반이 이미 잉여농산물을 축적할 정도였고 그것을 토대로 사회를 구성해가기 시작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 사회의 구성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포괄적인 의미에서 자연에 대립하는 문명이라고 이해해보자.

고고학자인 브라이언 페이건은 근동과 아시아의 초기문명에 대해 고찰하면서 기원전 3,000년경부터 이미 도시가 형성되었고 “그곳에서는 인간 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을 변화시키는 발달이 너무 빨라서, 안락하게 사는 도시 사람들과 궁극적으로 그들의 생존을 위해 식량을 공급해주는 농촌사회 사이의 깊은 불신과 같은 20세기 세계의 주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문명의 초기 단계에 이미 나타났다.”<sup>46)</sup>고 썼다.

이 시기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제 도시 국가가 출현하는데 이때로부터 문자, 바퀴가 발명되고 십진법과 육십진법의 숫자체계가 나타나서 이른 바 문명의 모습이 뚜렷해졌다.<sup>47)</sup> 이 시기 야금술의 발명으로 전문 장인 계급이 발생했고, 원료와 장인들의 생산물을 교역하게 되었다고 한다.<sup>48)</sup> 사회가 계급에 따라 나누어지고 인구가 늘고 교역이 활발해지고 아울러 전쟁이 빈발하게 되고 종교가 강력한 권위를 갖게 되는 사회로 변전해 갔던 것이다.

45) 박봉춘 구연, <친지왕본풀이>, 김현선, 위의 책, 405,406쪽.

46) 브라이언 페이건, 최몽룡 역, 『인류의 선사시대』(을유문화사, 1990년 3판), 206쪽.

47)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 1, 원시신화(까치, 2003), 174쪽.

48) 브라이언 페이건, 앞의 책, 207쪽.

이러한 사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市場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다. 李成九는 “원초적 市가 降神 및 祭禮의 지역”이자 “이에서 비롯된 초보적 정치의 장소”였던 것에서 “교역의 장소로 전화”되었으며 그 이유는 “神權을 매개로 하는 정치의 중심은 또한 경제의 중심지로서 재화의 집적 및 분배의 장소”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하였다.<sup>49)</sup> 또한 같은 책 같은 곳에서 王震中의 연구를 소개하여, “메소포타미아의 도시국가가 神廟를 핵심으로 건축되었고, 부속 창고를 동반한 방대한 규모의 신묘는 정치의 중심일뿐더러 경제의 중심으로서 농산물과 기타 중요물자의 집산, 출납의 장소였고 운하의 개착과 토지의 개간 등을 아울러 관장했으며 심지어 상품 교역활동도 신묘와 연결되었다”는 점을 부각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신전에 물자도 많이 모이게 되고, 물자간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점을 상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문제는 신에게 봉헌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과 교환하는 같은 물건이라는 점이다. 신에게 봉헌하는 것은 자연이나 신이 베푸는 삶의 전반적인 은혜에 대해 자신의 일부를 희생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순수한 종교적 심성인 반면에, 교환은 즉각적인 상호간의 보상을 전제로 하고 아울러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증여에 비해 순수하지 않은 것이다.<sup>50)</sup> 종교적 교리 가운데 이자를 받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인식을 설명해준다. 교환에는 기본적으로 속임수의 심리가 전제되어 있다.

농업은 자연이 인간에게 베푸는 순수한 증여라고 생각된 반면, 시장과 도시의 교역 행위는 일종의 속임수로 이루어지는 문명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 문명은 인류를 번영하게 했다. 인간의 문명이란 다름 아닌 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 신화의 오랜 인식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희랍의 프로메테우스 신화로 적실히 표현되었다. 프로메테우스는 제우스가 인간에게서 불을 빼앗자, 제우스 신전에서 불을 훔쳐 인간에게 가져다주었다. 문명의 상징인 불은 신을 속여서 인간이 갖게 된 것이다.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말처럼 도시 문명은 인간

49) 이성구, 『중국고대의 주술적 사유와 제왕통치』(일조각, 1997), 38쪽.

50)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옮김,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동아시아, 2004), 37~56쪽.



이 신에게 대응하는 행위의 결과였다. 이는 자연의 순수함과 달리 가공하고 꾸미는 것, 만드는 것이었다. 문명이 신에 대항하는 인간의 야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삽화는 구약의 바벨탑 이야기이다.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남아 있는 지구라트일 것으로 생각되는 바벨탑은 신이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모습과 그 자취는 곧바로 건축과 도시라는 문명 행위였음을 말해준다.

한편으로는 신이 존재하는 하늘 높이까지 올라가려는 인간의 정신적 진취성과 한편으로는 신이 임재하는 신묘를 교역의 장으로 바꾸어버린 불측함은 인간의 문명을 빚어내는 원동력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신으로부터 신의 힘을 흠쳐옴으로써 문명을 이룬다는 속임수의 모티브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구석기에서 신석기 시대로 옮겨갈 때도, 신석기에서 청동기 도시 문명으로 넘어갈 때도 한쪽은 선이 되고 다른 한 쪽은 악이 되었고, 우리의 문명 자체가 악을 포함하고 있는 선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사회에 늘 악은 선과 함께 있다고 제주도 신화는 말하고 있다.

## Ⅵ. 마무리

초감제 안의 신화인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는 악에 관해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준다. 전반부의 수명장자의 악과 후반부의 소별왕의 속임수를 통해서 문명사적 전환에 기인하는 상대적인 악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학적 장치를 마련했다. 수명장자의 악행과 하늘 천지왕의 대립, 천지왕과 지상 부인과의 남녀 결합, 천부지모의 아들 형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아들 형제가 이승 통치를 놓고 다투는 경쟁담, 그리고 그 결과물인 이 세상의 악을 인물과 사건을 통해 구체적 행위로 형상화하는데 성공했다고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전승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신화에서 보이는 악은 통시적으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문명 발생기의 문명사적 전환기의 상황을 반영하지만, 개인 개인의 삶에서는 자연의 악, 사회적 악, 개인이 저지르는 악이 현실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씨줄과

날줄로 엮어놓은 점도 이 신화의 성공적 구성 방식이다. 이 신화들은 자연 자체와 수명장자와 소별왕의 악행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설득력을 높였다. 자연적 악은 사람들끼리의 협동을 통해서 해결 하지는 데에 쉽게 합의할 수 있어서 더 큰 갈등은 없다. 인간 사이의 악은 개선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기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줄 사회적 영웅이 절실하게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악들은 궁극적으로 소멸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그런 세계에서 잘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적 인식을 이 신화는 보여준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유토피아가 아니며, 세상은 근원적으로 유토피아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냉철한 인식이 우리를 현존하는 악에 대해 깨어 있게 한다. 낙관적 결말로 현실의 비극에 눈을 감게 하지 않기에 해결에 대해 더욱 깊이 있게 숙고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정식·강소전·송정희, 『동북 정병춘택 시왕밋이』,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2008.
- 김남연, 「창세신화를 통해 본 장자정치담의 의미」, 『역사민속학』 8, 역사민속학회, 1999.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박이문, 『문학 속의 철학』, 일조각, 1975.
- 박종성, 『한국 창세서사시 연구』, 태학사, 1999.
- 서대석, 「창세시조신화의 의미와 변이」, 『구비문학』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1981.
- \_\_\_\_\_, 『이야기의 의미와 해석』, 세창출판사, 2012.
- 신연우, 「〈베포도엮침〉 <천지왕본풀이>의 구조를 통해 본 창세신화와 영웅신화의 관계」, 『열상고전연구』 4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4.
- 이성구, 『중국고대의 주술적 사유와 제왕통치』, 일조각, 1997.
- 이수자, 「큰굿 열두거리의 구조적 원형과 신화」, 집문당, 2004.
- 정진희, 「제주도 신화에 나타난 ‘신화적 일상’의 특성과 경험의 신화화 양상」, 『국문학연구』 14호, 2006.
- 정현종, 『나는 별 아저씨』, 문학과지성사, 1978.
- 조동일, 『동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 문학과지성사, 1997.

조동일, 『세계 문학사의 전개』, 지식산업사, 2002.

천혜숙, 「전설의 신화적 성격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1988.

최원오 편역, 『아이누의 구비서사시』, 역락, 2000.

최원오, 「창세, 그리고 악의 출현과 공간 인식에 담긴 세계관」, 전북대 인문학연구소, 『창조신화의 세계』, 소명출판, 2002.

현용준 편, 『제주도민담』, 제주문화, 1996.

나카자와 신이치, 김옥희 옮김, 『사랑과 경제의 로고스』, 동아시아, 2004.

브라이언 페이건, 최몽룡 역, 『인류의 선사시대』, 을유문화사, 1990년 3판.

아르놀트 하우저, 백낙청 옮김, 『개정판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1, 창작과비평사, 1999.

조셉 캠벨, 『세계의 영웅신화』, 대원사, 1996.

조지프 캠벨, 이진구 옮김, 『신의 가면』 1, 원시신화, 까치, 2003.

안네마리 피퍼, 이재항 옮김, 『선과 악』, 이끌리오, 2002.

폴 리콕르, 양명수 옮김, 『악의 상징』, 문학과 지성사, 1994.

## Understanding Evil in Jeju Shamanistic Myths, Korea

Shin, Yeonwoo\*

There are two creation myths, <Bepodoupchim> and <Chonjiwang Bonpuri>, which are performed at the very beginning of the Jeju Island Gut(shaman rituals) in Korea.

Those myths tell about;

- (1) people on earth suffered from two suns and two moons,
- (2) evil character Sumyung Jangja(rich person) who deceived people and treat his father badly.
- (3) the earthly evils due to SobyulWang who occupied this world by cheating his own brother DaebyulWang.

Two suns and two moons are a kind of evil to human beings, too. So DeabyulWang and SobyulWang got rid of ones of the twos completely. And we can sometimes do away with social evils of the person like Sumyung Jangja. The real problem is that the one who saved people by shooting the sun and moon away is the very cause of the earthly evils such as robbery, homicide, adultery, etc.

This ironical situation compels us to pond over the problem of the perpetuity of the evilness on this world. As long as the evils are not to vanish on this world, there is no paradise or utopia. So <Bepodoupchim>

---

\*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Chonjiwang Bonpuri〉 raised a question; how to live with evils.

I also discussed about the history of our civilization containing the evilness from the dawn, prehistoric age to Bronze age; evil is related with the civilization itself.

Cool-headed understanding of no paradise here in this world keep us aware of the evils in actual existence.

**Keywords :** Jeju Gut(shaman rituals), 〈Bepodoupchim〉, 〈Chonjiwang Bonpuri〉, evil, civilization.

\*이 논문은 2014년 7월 15일 투고되어

편집위원회의 심의와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2014년 8월 16일 심사가 완료되고

2014년 8월 25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논문임

